신장·고형암 신약 中 대륙 진출

CJ-40001 일본이어 개가
NCPC와 기술 수출계약 체결
투여횟수 개선한 빈혈 등 치료제
1000억원 2세대 EPO 시장 확보

지난 30일 진행된 기술수출 계약 체결식에서 마동지에 엔씨피씨 젠테크 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왼쪽)와 강석희 CJ헬스케어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헬스케어

CJ헬스케어가 2세대 EPO(적혈구 생성 조혈제)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CJ-40001'이 일본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다.

CJ헬스케어는 지난 30일 중국 석가장시에 위치한 엔씨피씨(NCPC) 본사에서 엔씨피씨 젠테크 바이오테크놀로지와 2세대 EPO 바이오시밀러인 'CJ-40001(오리지널 의약품 코와하코기린 '네스프')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CJ헬스케어는 CJ-40001의 생산 기술을 중국 엔씨피씨 젠테크에 이전하고, 계약 체결 및 허가승인에 따른 기술료와 연도별 판매 로열티를 별도로 받는다.

엔씨피씨 젠테크는 중국 내 CJ-40001의 임상시험부터 허가, 생산, 판매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세계 2세대 EPO시장은 약 3조원(2016년 IMS기준) 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세대 EPO 제품들이 출시되면 약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J헬스케어가 기술 이전한 엔씨피씨 젠테크는 향후 중국에서 연간 1000억 원대 규모의 2세대 EPO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1세대 EPO제품을 세계 3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 출시한 CJ헬스케어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R&D 역량을 쌓아왔다.

1세대 EPO보다 투여횟수를 개선한 2세대 EPO 바이오시밀러 'CJ-40001'을 개발해온 CJ헬스케어는 지난해 일본 YLB에 기술 수출하며 일본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이번 계약으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피씨 젠테크는 중국 대형 국영제약사 엔씨피씨의 바이오 의약품 전문 계열사로, 1998년 설립됐다.

중국 EPO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 전 지역에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적인 제약회사 중 하나다.

강석희 CJ헬스케어 대표는 "CJ-40001의 기술수출로 일본에 이어 중국에 CJ헬스케어의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 향후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 세계 시장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PO는 만성신부전환자의 빈혈, 고형암의 화학요법에 의한 빈혈 치료제(조혈제)로, CJ헬스케어는 기존 주 3회 투약하는 1세대 EPO 대비 주1회 또는 2주에 1회 투약하도록 투여횟수를 개선한 2세대 EPO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은 쿄와하코기린 '네스프'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JW그룹은 31일 김포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효원연수문화센터에서 소년소녀가장 대상 자전거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JW그룹

JW그룹 김포서 소외계층 지원·장애인 후원

사회공헌 커미티 신설… 활동 강화

JW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

JW그룹은 31일 사회공헌조직인 '사회공헌 커미티(위원회)'를 신설하고 첫 나눔 행사를 열었다.

사회공헌 커미티는 기존 중외학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선생의 고향인 김포 지역에서 고인이 평생 실천한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이날 열린 첫 나눔행사는 올해 새롭게 입사한 JW중외제약, JW신약 등 JW그룹 신입사원 40여명과 김포지역 소년소녀가장 30여명이 김포시 효원연수문화센터에 모여 함께 자전거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친밀감 형성을 위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완성된 자전거는 김포복지재단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JW그룹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시키고 소년소녀가장들의 자립 의지를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그동안 공유가치경영을 실천해온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대내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참 인술을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는 '성천상' 시상사업, 장애인 메세나 사업, 학술·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박인웅 기자

의자에도 'IoT'… 공부할때 바른자세 돕는다

디비케이, '듀오백 온' 출시

듀오백 온 이미지.

'의자 명가'인 디비케이가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해 공부하는 자녀의 바른자세를 돕는 의자 '듀오백 온'을 31일 내놓고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앞서 디비케이는 서울대학교, SK텔레콤, 스타트업인 알고리고와 손잡고 의자와 IoT 융합 제품 개발을 위해 3년 가량 준비해왔다. 서울대는 인간공학분석과 평가를, SK텔레콤은 앱 서비스 제공을, 알고리고는 센서 개발 및 운영을 각각 맡았다.

방식은 이렇다. 자녀가 '듀오백 온' 의자에 앉으면 좌판부에 있는 필름형 압력분포 센서가 자세를 인식한다. 이때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지, 허리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앉았는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지 등 6가지로 자세를 분석한다. 분석한 자녀의 자세는 통신망을 통해 서버에 축적된다. 이 서버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정관영 디비케이 대표는 "바른자세로 의자에 얼마동안 앉아있었는지 등을 일, 주, 월간 단위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바른자세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안팎 어디에서나 자녀가 바른자세로 공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학습 습관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는 ▲아이가 하루 평균 앉은 시간 ▲주로 앉아 있는 자세(일간, 주간 등) 등 아이의 자세를 분석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듀오백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의자 시장을 주름잡았던 디비케이(DBK)는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고 다양한 시장 추가 개척 등을 위해 오는 3월 '주식회사 듀오백'으로 사명을 바꾸고 제 2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새 경영진 선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임기환 교수
진료부원장 직무대행 이선영 교수

지난해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고로 경영진이 전부 물러난 서울 이대목동병원이 새 경영진을 선임했다. 신임 경영진은 신생아 사망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신설된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회(운영특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기획조정실장 직무 대행에 임기환 안과 교수, 진료부원장 직무 대행에 이선영 소화기내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수련부장 직무 대행에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 연구부원장 직무 대행에는 류동열 신장내과 교수, 응급진료부장 직무 대행에는 김관창 흉부외과 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경영진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및 이대목동병원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된 김광호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새 경영진과 함께 일부 보직 교수도 신규 발령됐다. 미숙아 사망 사태 관련 사의를 표명한 손세정 소아청소년과 과장과 김한수 홍보실장이 면직됐으며, 후임 소아청소년과 과장 직무 대행에는 유은선 교수, 홍보실장 직무 대행에는 이사라 산부인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화의료원은 이번 인사가 전 경영진과 일부 보직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미숙아 사망 사태 발생 및 이후 적절하지 못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기 중 중도 사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경찰과 보건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발령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호 이화의료원 운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사로 구성이 완료된 운영특위는 사태에 대한 경찰 및 보건 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원인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스키장 상해 다리·발-팔·손-머리 順

최근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시즌(2014~2017년) 동안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492건으로 이 중 87.6%(431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였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이다. 이 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은 다리·팔 등의 '골절'이 37.8%(186건)로 가장 많았다. '타박상' 25.4%(125건), '열상' 10.6%(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이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0.4%(30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6%(198명)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스노보더가 스키어와 충돌한 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더 제기되고 있다.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유진 기자

'한파'에 편의점 핫팩 매출 '역대 최고'

연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편의점 핫팩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편의점 CU는 1월 한 달간 핫팩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22~28일 핫팩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92.9%)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핫팩 매출은 직전 한주보다도 5.7배나 늘었다.

지역별 핫팩 매출 신장률을 보면 인천이 9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78.4%), 충남(72.9%), 경기(60.7%)가 뒤를 이었다.

최저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던 강원도의 핫팩 매출 신장률은 오히려 9.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핫팩 판매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주원료인 철가루 수급도 비상에 걸렸다. 국내 철분 생산업체는 2곳에 불과해 대부분 핫팩 제조사가 이들에 의존하고 있다.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업체까지 긴장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ujin6326@